구동에서

김 종 민
논설실장

선선한 가을이 오면

추석 연휴 내내 찜통 만큼 더웠다. 강한 햇볕에 나서면 불에 데인듯 아팠다. 에어컨을 틀고 차례를 지냈다. 인내도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다.

최악의 이상기후다. 최고기온, 열대야 기록을 숱하게 갈아치우고 있다. 가장 뜨거웠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를 온 몸으로 견뎌야 했다. 9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았다. 역대급 늦은 특보가 연일 발령됐다. 온열질환자도 잇달아 발생했다.

이번 주말,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다. 비 그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30도를 웃돌던 고온도 수드러들 전망이다. 비로소 제대로 숨 쉴 수 있게 됐다. 지독한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광주공항의 무안 통합, 민생을 외면한 정국 불안으로 모아졌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보여주기 정치 쇼를 정말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두고는 광주시와 무안군, 전남도 간 감정섞인 다툼만 부각되고 있다며 꼬집는다.

본말전도식 공세를 반복하며 협치 정신이 사라진 국회, 300석 가운데 175석의 압도적 제1 정당임에도 역할에 소홀한 더불어민주당, 20% 지지율로 리더십 없고 무능하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까지 이만저만 아니다.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신뢰도 곤두박질하고 있다. 속 터지는 상황들 뿐이다.

끝을 모르는 여름도 물러나고 있다. 계절은 또 시나브로 변화하고 있다.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오롯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섣부른 희망을 버리려 한다.

제발, 손 내밀어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시라. 늦더라도 건강한 정치를 해야 한다. 국가경영도, 지방 행정도 위기라는 사실을 엄중 인식해야 한다. 국민적 명령이다.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정책도, 현안도 제각기 이해가 다르니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원만하게 풀지 못해 피로감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길어지는 경기 불황에 먹고사는 게 만만찮다. 풍요로운 한가위는 옛말이다. 모두 올랐다. 천정부지 물가에 차례상 차리기도 버거웠다. 서민들의 한숨이 깊다.

가뜩이나 명절 때면 없던 스트레스도 생긴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래저래 더욱더 불편했다. 불쾌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이 무탈해서 안도하고 있다. 혹시나 불상사를 우려했으나 지나갔다. 당국은 의료대란은 없다는데 종합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응급 신세에 놓였다. 진료 축소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로 비롯된 의사 파업을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강대강 대치를 풀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질펀한 땅이 마르면 더욱 단단해지듯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지금 질척거리는 땅을 밟고 서 있다. 물기가 마르면 땅은 걷기에 더욱 편해질 것이다.

모기 입이 삐뚤어질 처서가 한참 지났는데 모기가 윙윙거린다. 슬슬 힘이 없어지고 물지 못해 자취를 감추기엔 아직이다. 35도 안팎 온도에 맥 못추던 (낮이고 밤이고 펄펄 끓던 사람잡는 더위에 예외는 아니였을꺼야) 녀석이 기온이 내려가면 오히려 살기좋은 환경이 될까 걱정이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도 10월까지는 계속된다. 고농도에 노출 시 눈을 자극하고 폐와 심장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도 평년 날씨를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경관이 아름다운 가을철 드라이브 코스로 전남도가 고흥 거금해안도로, 곡성 섬진강변, 무안 조금나루해안일주도로, 신안 흑산도 일주도로를 꼽았다. 그림같은 풍경이 어디에도 견줘도 손색없을 명소다. 나를 위해 잠시라도 떠나보자. 가던 길 도중에 멍 때리는 것도 좋겠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 안성맞춤이다.

제법 고단한 추석 연휴를 보냈다. 이젠 높고 푸른, 뭉게구름 하늘을 마주하고 싶다. 벼 이삭은 노랗게 잘 여물어 수확의 기쁨을 전하고, 가로변 풀잎에는 이슬이 맺힐 때다. 우악스런 매미 울음이 슬며시 사라지면 어디선가 처량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올 게다.

문화난장

이 현
아동문학가

내일을 향한 열정, '충장축제'에서 불태우자

이제 곧 10월이다. 늦더위에 몸은 물론 마음까지 고실라질 거 같지만 이 더위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질 터다. 머잖아 가을이 성큼 다가들 거다. 가을의 문턱에 서면 언제나처럼 우리들의 청춘이 떠오를 거다. 그 청춘의 시절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 충장로다. 옛 기억을 떠올려 본다. 우다방과 충장로 거리가 인파로 넘실댔더랬다. 그 사이를 비집고 달음박질치며 우리에게로 달려드는 추억의 편린들, 그 조각들을 소중하게 보듬어 낸 축제가 있다. 바로 충장축제다. 그 축제가 올해로 벌써 스물 한번째를 맞이한단다. 성년을 지나고 새로운 첫 번째 해다. 시간이 잘도 지나간다. 그동안 축제가 과거형 축제였다면 이번 축제는 지난 해에 이어 또 다른 추억, 미래로 가는 추억의 터널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충장축제는 올해 우리들에게 멍석을 가만히 깔아준다. '충.장.발.光'이란 타이틀 아래 신나게 한번 놀아보라고 한다. '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에서 야심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만난다. 열정, 불꽃, 대동, 추억 등을 컨셉으로 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 이번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지난날 열정의 불씨를 끄집어내 보자. 우리가 가슴 속 깊이 간직해온 불씨를 한데 모아 축제장의 불빛을 밝혀보자. '추억의 불씨'를 뒤적여 보자. 이번 축제에서 추억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단다. 추억이 과거에서 건너와 현재로 와서 미래로 달려간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의 장에서 시점이 유기적인 추억이 펼쳐질 터다.

추억 만들기 중의 하나, '길 위의 스케치북'을 보라.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금남로 거리 전체가 스케치북이 될 터이다. 거기에 추억 가득한 그림이 그려진다. 어디 그뿐이랴, '추억의 밀가루 놀이'(10월5일)는 또 얼마나 신날지. 90년대 졸업식 문화를 모티브로 일탈과 해방감을 주는 놀이가 아니고 무엇일까. 전국 각지의 전 현직 '올드앤영 DJ'가 금남로에 집결된다. '열정 댄스 나이트'(10월4일 금요일)가 그것이다. 다시 타오른 가슴속 열정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나누며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고고팝, 뉴트로 댄스, 세대별 음악 카운트다운 등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불타는 금요일 밤 댄스파티다.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복싱장 배틀, 추억유랑단, 바둑대회, 오목& 알까기대회, 추억의 보드게임, 추억의 롤라장 등 추억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또 누구든 마음 속 소원을 빌고 싶을 땐 '소원장작 과 매직 파우더'도 해봄직 하다. 금남로에서 특별한 재미를 경험할 수 있을 거 같다. 소원장작을 구매한 후 참가자가 직접 불멍 화로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장작은 오로라 형태의 불꽃을 내며 지지직 타오를 거다. 매직 파이어를 보며 추억을 만들어내는 귀한 밤이 될 것이다.

이제 가을이다. 아무리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가을은 온다. 우리 안에 꼭꼭 숨어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웅송그리며 대지 위로 퍼뜨려질 것이다. 충장축제에서 그 불씨를 가만히 꺼내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일상에 얽매여 답답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야호!"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보는 것도 좋다. 과거의 추억 회상만이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추억을 충장축제에서 만들어 보자. 세상이 만들어 놓은 '너다움, 나다움'의 틀일랑 훌훌 벗어버리자. 그리고 '나다움'을 챙겨 마음껏 날아올라 보면 어떨까. 감각과 감정을 한껏 되살려 추억의 열정을 불태워 보자. 로맨스 파이어에서, 파이어 퍼레이드에서, 또 복싱배틀에서, 아니다, 충장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추억을 소환하거나 재생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스스로 가치있게 빛나는 불꽃과, 추억으로 하나되어 보자. 그리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대동의 마음으로 뜨겁고도 화끈하게 놀아보자. 내일을 향한 "파이어!" 광주 충장축제에서 말이다.

독자투고

집회소음 기준 강화, 선진 집회 문화 정착

지난 8월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을 전체적으로 5db씩 강화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일몰 후-자정), 심야(자정-오전 7시) 시간대의 소음 기준은 10db 강화됐다.

기존 야간 시간대 주거, 학교, 종합병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이었으나 50db로, 심야 시간대는 기존 55db에서 현행 45db로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과 관련해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음 기준이 강화될수록 자칫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된 소음 기준으로 주민 평온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최 측과 시민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존중받고자 한다면 집회 특성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강화된 소음 기준치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최 측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집회 신고 단계서부터 변경된 내용, 엄격한 소음 측정을 고지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 시민의 평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람의 욕구가 반영되는 집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집회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값인 선진 집회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나희관·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한 KIA, 이젠 김도영 차례다

프로야구단 KIA 타이거즈가 추석 명절에 2024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다.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약속했다. KIA의 진가는 KBO 리그 첫 1980년대생 사령탑인 이범호 감독의 형님 리더십에서 비롯됐다. 올해 초 타격 코치에서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 감독은 경험 부족의 우려가 있었지만 보란듯이 시즌 초반부터 줄곧 1위를 질주했다. 고참 또는 후배 할 것 없는 이른바 '소통 야구'가 결실을 맺으며, 부임 첫 해 명장 반열에 올랐다. 즐겁게 플레이를 해야 최고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는 철학이 빛났다.

타선에선 '슈퍼스타' 김도영이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최형우·나성범·소크라테스는 고비 때마다 해결사와 한방 노릇을 톡톡히 했다. 2017년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대들보 투수 양현종, 구원왕을 예약한 정해영 등 불펜도 탄탄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투·타의 균형이 숨은 원동력이 됐다. 베테랑과 젊은 피의 조화가 특히 돋보였다. MVP 경쟁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김도영의 기록 잔치에도 이목이 쏠린다. '3할-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을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KBO리그 역대 두 번째이자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40도루'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전신인 해태 시절을 포함, 11번 진출해 모두 불패 신화를 쓴 KIA는 한국시리즈 제패 또한 무난할 전망이다. KBO 규정에 따라 7전 4승제 한국시리즈의 1-2차전과 5-7차전을 광주에서 개최한다. 개장 10주년을 맞이한 안방인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처음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게 됐다. KIA는 2009년과 2017년 한국시리즈 모두 서울에서 축배를 들었다. 당시에는 5-7차전을 중립 구장인 잠실에서 치렀다. 현재 2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달빛시리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프로야구가 올해 관중 1천만명 시대를 개척하며 역대급 흥행을 누리는 와중에 프로야구를 대표해온 양대산맥 간 최고 빅매치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수시모집에서 확인된 의대 열풍…후속 조치 최선을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전형에서 전남대·조선대학교 의예과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몰렸는데,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전남대는 전체 3천946명 모집에 2만4천90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31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5.85대1)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하지만 의학과의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전형은 7.86대1(102명 모집)로 지난해 4.09대1(78명 모집) 경쟁률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조선대는 4천573명 모집에 2만1천360명이 지원해 4.6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지난해(4.41대1) 대비 조금 올랐으나, 의예과 학생부교과(지역인재)는 11.12대1(68명 모집)로 지난해 6.93대1(40명 모집)보다 급등했다. 전남대 뿐 아니라 조선대도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증원 인원보다 지원자가 더 늘었다. 지방의 경우 2배 이상 많았다. 서울 지역도 대부분 두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재학생은 물론 N수생도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시 전체 선발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도전할 수 있다. 전국에서 누구든지 지원하는 일반전형과 견줘 기대되는 학생 수 자체가 적다. 너도나도 지역 전형에 집중화되는 양상으로 그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지방대 위주로 늘렸다. 또 국립대 시설과 기자재 확충에 전임 교수를 1천명 확보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대학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와 의학 연구 거점 기관으로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이 관련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타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서 의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광주를 비롯해 비수도권에서 열풍이라 할 만하다. 당초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학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 6만명…3년6개월만에 최소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565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64만8천명)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줄곧 줄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 4월까지 38개월 연속 증가 폭이 1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지난 5월(6만4천명)과 6월(9만명)에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7월(15만명)에 다시 10만명을 넘었으나 지난달 다시 6만명으로 대폭 둔화했다. 이로써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도 89.1%에 그쳤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 10월(89.9%) 90% 아래로 내려간 뒤에는 47개월 연속 90%를 밑돌고 있다. 반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4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천명 늘었다. 대기업 취업자는 2019년 3월부터 6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 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